34장(1)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심

여호와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실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셨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33:17) 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여호와 께서는 "나의 **선함**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할 것" 이라고 대답해 주셨으며 (33:19), 여호와의 이름의 핵심이 참된 인자임을 선언해 주셨다(34:6-7). 여기에서 '영광'과 '선함'과 '이름'이 긴멸히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여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다.

1. 여호와의 이름 선포와 언약의 갱신 (34:1-9)

모세는 언약이 깨어진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주실 수도 있었으나, 모세에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셨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에 사람이나 가축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강림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모세의 앞을 지나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특성을 말씀하셨다.

재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은 모두 '중언법'으로 자비로운 은혜, 참된 인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표현이 있다.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언되자 모세는 이것을 붙잡았다. 그리고 급히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의 핵심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며, 그 이름이 선포되면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의 태도를 취한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죄의 핵심은 자기 주장이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었는데, 이제 그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모세는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였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노래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의 핵심으로 목이 곧은 것을 고백하였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의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 사실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참된 인자가 있으실 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경배하였던 것이다.

2. 언약의 의무들 (34:10-17)

1) 하나님의 언약 (34:10-1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 적"을 행하겠다고 하셨다(34:10). 이 말씀에서 '이적'은 출애굽의 구원을 가리킬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미래의 일,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행치"라는 말은 "창조하다" (바라)는 히브리어를 번

역한 말이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라고 하셨다. 그만큼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러한 구원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워이 되지만, 가나안 워주민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2) 언약의 의무 (34:12-1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는 것을 싫어하셨다.

가나안의 제단과 석상과 목상을 깨뜨리라고 하셨다. 석상은 남자 신이고 목상은 여자 신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남자의 강한 것을 숭상하였는데 그것을 깨뜨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뿌리부터 자르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이방의 우상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므로 우상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질투'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강한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셨다.

3) 가나안 땅에서 피할 우상 숭배와 불신 혼인 (34:15-17)

이방인들의 제사와 축제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응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혼인하는 일이 생기고 여자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데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 긴 것이 그 예가 된다. 우상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우상을 피하라고 하셨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음란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전에서 행하는 음란한 행위로 자기 신들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데에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묵상과 실천:

제2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 주심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제2계명을 어긴 것이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써 언약을 어긴 그들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 주셨다. 여호와 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함'과 '이름'을 알려 주셨는데, 그 이름 의 핵심은 참된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있었다.

1. 제2계명 -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문제

제2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죄를 지적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이다. 34장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2계명을 인용하신다(6-7, 14절).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 것과 연결된 계명이다.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행복을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이 경우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이나 능력과 동일시 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형상화하여서 신으로 만든 사람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 능력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제2계명의 핵심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 전에 마음으로 만든 우상의 상도 포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제2계명에서 여호와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을 제시하였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신 4:15)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을 언급하셨다(신 5:16-19).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 었다(신 4:11). 아래에는 불이 있었고 위에는 깊은 어둠과 구름이 덮고 있어서 피조물로서는 그 어둠 위의 하나님과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참고 신 29:29). 물론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빛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이다(日전 6:16). 빛이나 어둠이 모두 창조주의 절대적인 엄위를 나타내고 피조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심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과는 절대적인 구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사 40:18). 거룩하신 자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비기거나 동등이 되게 할수 없다(사 40:25-26).

2.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에게서 선언됨

여호와의 영광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에서 나타났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선언되고, 이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에 나타난 구원의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된다. 출애굽기 34:6-7은 구약에서 반복되어 나온다(신 4:31; 대하 30:9; 느 9:17, 31; 시 86:15; 시 103:8; 시 145:8; 욜 2:13; 욘 4:2 등). 여호와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품고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는 계속하여 찾아오셔서 그분에게도 돌아오게 하신다.

예수님을 보낸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인자가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여기에서 "거하시매"는 "성막을 치시매"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일은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 게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곧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3.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경배

제2계명에서는 참된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형벌하신다는 사실도 가르친다. 그분은 용서하시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신비에 속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다. 시편 99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다.

제2계명의 말씀대로 삼사 대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나 모세를 거역한 두령들은 그의 가족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 또한 반역하는 그 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안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다.

삼사 대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생각한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죄이다. 삼사 대까지 죄를 형벌하는 것은 제2계명의 문제이다. 부모가 오롯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가 모두 주님의 형벌을 받는다.

죄와 씨름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이름, 곧 참된 자비가 있는 그분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자 그분 앞에 엎디어 경배하였다(34:8).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나타난 반응은 여호와 앞에 엎디어서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경배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히 대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

34장 (1) 익힌 문제

- /. /)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두 번째 동판은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그 동판의 말씀은 누가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절)
 - 2) 하나님께서 모세른 통해 다시 된단에 계명은 주실 때는 누구만 온라오라고 하셨습니까? (3절)
 - 3)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둘째 된만은 주셨습니까? (6절)
- 2 /)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그들라 무엇은 맺는 것은 균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 2)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분'으로 계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